

#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참 구세주

## 고도로 사모하고 초초로 바라보라

이 세상에는 지름길이 있는가 하면 바로 가는 길이 있고, 바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구원의 문이 되는 구세주가 구원 얻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만 죽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기만 하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초초로 이긴자를 바라보는 방법도 있고, 고도로 사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도로 사모하면 마귀가 죽습니다. 고도로 사모하면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맘속에 들어옵니다. 구원 얻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고도로 사모하는 것이요, 초초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초초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으로 이긴자가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초창기에 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긴자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로 오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씌운 사람을 바라보면 바로 마귀한테 씌운다.” 하는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옳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한테 씌우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 미운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반대 생활을 해야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초초로 바라봤던 것입

니다. 이 세상 말속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화난 사람 곁에 가면 저절로 화가 나고 슬퍼하는 사람 옆에 가면 저절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초초로 바라본다든지 고도로 사모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이 내 맘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자존심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 얻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논했던 것은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여러 가지 길을 가 본고로 그 길과 방법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갔느냐면 바로 반대 생활을 하는 길을 가 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도리어 사랑했던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이러한 반대 생활을 하려니만 욕심이 나오면 회생하는 생활을 하고, 화가 나면 깔깔대고 웃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봤을 때에 못 마땅한 마음이 나오면서 미운 마음이 나오면서 화가 나오므로 상대방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뜻밖의 평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존경하는 마음,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



구세주 조희성님

을 좋아하는 마음이 나오므로 그런고로 화가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와 같은 마음의 투쟁을 하려니까 굉장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것을 해 낸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하고 천대 멸시를 하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미워했으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들었고 마귀라고 그럴 적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잘못을 스스로 뒤우치고 깨닫게 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신 감사했던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달랐고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귀라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귀라고 그 래졌으면 할 때가 왔던 것입니다. 마귀라

고 그럴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이 마음 길로나, 눈길로나, 입술로 죄를 지려야 질 수가 없는 생활을 했는데 이제 마귀라는 소리를 안 하고, 인정을 하고 찾아와서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부탁을 하니까 마귀 소리 들을 때는 차라리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또 생겼던 것입니다.

## 은혜 받는 비결

그래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때는 어떻게 여겼냐면 마귀새끼로 봤던 것입니다. 저런 마귀 새끼인고로 이 사람을 인정을 하고, 마귀 새끼인고로 마귀를 보고 좋아하는구나. 하는 각도로 생각을 하니까 범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에게 가장 아부를 하고, 가장 아양을 떠는 사람이 바로 원수 중에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기가 어떤 길을 걸었냐면 바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마귀로 봤고, 이 사람을 마귀라고 하고 이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도리어 하나님처럼 존경을 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감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마귀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 은혜가 강하게 연결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고 마귀라고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도리어 감사히 생각하고 존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 더 사랑해주는 체험을 하는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해 주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은혜 체험 가운데서 자유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죽이는 법이 자유율법인 것입니다. 마귀를 죽이는 법이 자유율법이요, 바로 은혜를 받는 법이 자유율법인 것입니다.

##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몸도 변해

그러니까 나를 짓이기고 나를 짓밟고 나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개지만 취급을 할 때에 은혜가 강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영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을 먹는 대로 몸의 변화가 오고, 마음을 먹는 대로 은혜 연결이 달라지는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마음먹는 대로 몸이 변한다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지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신경질도 많았고, 화도 잘 내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화가 나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형제가 여럿인데 동생들이 밥상에서 뽕 싸대기 맞다고 무서워서 이 사람과 밥을 같이 못 먹었던 것입니다. 맛있는 걸 집어먹어도 한 대 얻어맞고, 빨리 먹어도 얻어맞고, 천천히 먹어도 얻어맞고, 밥을 흘려도 얻어맞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성질이 못 됐고 혈기가 많고 신경질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점점 변화되어 밥을 흘려도 화를 안 내고, 맛있는 걸 막 집어먹어도 아무 소리를 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고 “야, 과연 우리 형이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왔을까?” 하고서 알아봤던 것입니다. 알아보니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동생들이 다 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렇게 현저하게 변화가 되기까지는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변화가 오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뜨듯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변화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1992년 5월 26일 주님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 [ 연재 ]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 (11) 아브람의 아내 사래와 여종 하갈

## (11) 아브람의 아내 사래와 여종 하갈

(지난호에 이어서)  
아브람 85세 때에 첩 하갈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천막집을 나온 사래는 네겔(네겔) 광야까지 떠돌며 내려갔습니다. 네겔 광야의 사막에 조그만 오아시스에 이르면 사래는 여호와와 사자(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사래에게 “너의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아브람에게 속히 돌아가라.”고 위로와 함께 귀를 증중했습니다.  
그 후로 사래가 천사를 만났던 오아시스의 샘은 ‘브엘라하로이(Beerlahairoi)’라고 불리었는데 그 샘의 이름에는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아브람은 고지식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 여주인 사래를 모함하여 내뱉을 궁리를 한 것입니다. 하갈이 주인 아브람에게 “나 같은 계집종이 당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니 여주인 사래가 시기하며 핍박하나다.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을까 두렵나이다.”라고 울면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이런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일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람이 오히려 사래가 억울함을 당한 것을 알고 쫓겨나간 사래를 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러

한 기막힌 사연을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가려져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여인 사래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래가 여종의 핍박으로 내쫓김을 받고 다시 원래 주인의 자리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한 여종 하갈을 잘 대우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네겔 광야에서 천사를 만난 사래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잘 자랐으며 열세 살이 되어 양피를 베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스마엘은 사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은 자는 하갈이지만 분명히 하갈은 여주인 사래를 대신한 씨받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사래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옳았다고 자신을 낳은 생모 하갈을 유모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래의 나이 차이는 열 살입니다. 아브람 구십 구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아버지)+람(높은)=아브람

(높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브(아버지)+라함(무리)=아브라함(많은 무리의 아버지)》으로 바꿔 주셨고, ‘지배자라는 뜻의 《사래》의 이름도 ‘여주인’이라는 《사라》로 바꿔 주시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아브람 구십 구세에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백 세에 아들을 낳으리라.”라는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보

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분처 사라로부터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여종 하갈과 그의 자식 이스마엘이 합세하여 분처의 자식 이삭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매우 아팠지만 예전에 술개가 내려와서 돌제단 위에 새끼 짐비둘기를 쪼아 먹으려는 것을 자신이 쫓아버린 일이 있었는데(창 15:11), 그와 같은 일이 그대로 재현된 것 같아서 놀람기도 했습니다.  
술개는 시기심 마귀가 틈탄 하갈을 상징하며 산비둘기는 집을 떠나 야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을 상징하며 그리고 새끼 짐비둘기는 막 태어난 이삭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갈이 여종의 신분으로서 여주인 사라에게 순종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라 품에 주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장자상속은 큰 아들 이스마엘에게 갔지 둘째 이삭에게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창17:18).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처 자식이나 첩의 자식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 창세기 17장
- 18절: 아브라함이 아예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이다
-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뱉다

##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더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 발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못한가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누울 자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더라’ (갈4:29)는 말씀도 있듯이, 예컨대 육체 같 수 없었을 것입니다(창17:18).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처 자식이나 첩의 자식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따라 난 자로서 단(Dan)에게 장자상속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옮기시어 야곱의 하나님에 이어 단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창49:16). 예수의 조상이 되는 유다를 낳은 레아가 야곱의 분처가 될 수 없고 첩이라는 증거는 정혼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정혼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처입니다.

어쨌든 한 어머니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장자상속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인들은 그들의 경전 꾸란(나사야 4장 129절)에 남편을 둔 여자들끼리 시기심을 갖지 말라는 교훈을 많이 남겼고, 그 시기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